

미래 세계 사막서 갱들과 싸우는 멜김슨

씨네 클럽 '매드 맥스'(SBS·15일 새벽1시)



1980년에 호주의 외과 의사 출신 조지 밀러가 만든 '매드 맥스'는 폭주족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한 경찰이 포드 랩콘을 몰고 다니면서 그들을 분쇄한다는 내용인데, 그 가공할 액션과 스피드가 전 세계 관객을 흥분시켰다.



일로 비탄에 빠진 맥스는 사표를 제출하지만 수리되지 않고 대신 휴가를 얻는다. 오랜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 자식과 함께 자동차 여행길에 오르지만 도중 폭주족들에 의해 그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진다.

TV 하이리이트

장기자랑 1등 반에 자유시간



반율림#3 '수확여행에서 생긴 일'(KBS2·오전 8시35분)은 시인에게 담뭍이를 하며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이준은 답답한 등장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잠이 든다.

'하늘이시여' 배덕이 박해미 출연

도전! 1000곡(SBS·오전 8시30분)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SBS 주말드라마 '하늘이시여'의 배덕이 박해미가 등장한다.

꽤 배우이기도 한 박해미는 자신만의 매력력을 무대에서 펼쳐 보인다. 최고의 뮤지컬 스타로서 최고의 연기자가 된 박해미의 멋진 노래실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여 준다.

악물 의혜 통제되는 미래 세계



이 퀵리브리엄(채널 CGV·밤 10시)은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광기어린 연기를 훌륭히 해내 극찬을 받은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맡아 열연한 '이퀵리브리엄'은 동양무술이 집폭형 화려하고 독특한 액션이 돋보이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SF물이다.

세계적 갑부와 007과 한판 승부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XTM·밤 9시50분)는 70년대 말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으로 변신하는 자동차, 중중지기, 잠수함을 사실적으로 제작하여 화제가 되었던 영화. 흥행에 대 성공을 거두고 주연을 맡은 로저 무어가 007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힌 작품이다.

시대의 아픔이 빛은 비극

스페셜 '내 친구 김동관'(MBC·밤 11시40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26년, 진실에 대한 수많은 조사와 보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80년 5월의 기억을 묻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거대한 비단뱀 위산으로 밝혀져

CSI 마이애미 '진실과 거짓'(MBC·15일 새벽 0시35분)은 도미니 호텔 수영장,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던 납치기를 잡은 호텔 경비원이 수영장 옆 휴게실에서 온 몸이 점액질로 덮혀있는 여자의 시체를 발견한다.

케이블·위성TV

Table with TV channel listings for YTN, SBS, KBS, MBC, etc. including program names and times.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통화)